

동천장학회 기본재산 4억원 증자

동천장학회 2008년도 2차이사회에서 증자 의결

동천장학회(이사장 강수동)는 기본재산 4억원을 증자하기 위한 2008년 제2차이사회를 6월18일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 2층 회의실에서 임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현재 6억원의 기금으로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한 강수동 이사장이 사재 4억원을 출연하여 증자하기로 마음을 굳혀 이날 이사회를 통해 기본재산 증자를 위한 정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로써 동천장학회는 기본재산 10억원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장학법인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강수동 이사장은 "우리지역 인재양성 및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배움의 뜻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불우한 학생들이 더



동천장학회는 기본재산 4억원을 증자하기 위한 2008년 제2차이사회를 6월18일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 2층 회의실에서 임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천장학회는 기금 5억원에 2006년도에 1억원을 추가로 증자하여 총 6억원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4억원의 증자로

총 10억 원의 기본재산을 가진 포천지역의 대표적인 장학회가 되었으며 장학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천문화원에서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문학 열정으로 포천文壇 가꾼다'

포천문인협회, 제5회 포천문예대학 수료식



포천문인협회는 지난 10주 동안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제5회 포천문예대학을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고 6월19일 오후9시 수료식을 가졌다.

포천문인협회(회장 이종희)는 지난 10주 동안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제5회 포천문예대학을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고 6월19일 오후9시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문예대학에서 5회이상 참

석해 수료증을 받은 사람은 46명이며 이중에서 15명은 10회 모두 출석하여 문학수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었다.

이번 수료식에서 이종희 회장은 "시, 수필, 소설을 체계적으로 학문

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며 그것보다도 새로운 훌륭한 분들을 우리 포천문인협회 회원으로 모실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일생에서 가치 있고 보람 있었던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제5회 포천문예대학 수료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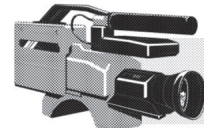
- ▶김기숙 ▶김현남 ▶김선진 ▶김순희 ▶김명숙 ▶김영복 ▶김은희 ▶김정영 ▶김정숙 ▶김정택 ▶김진주 ▶김창호 ▶박서영 ▶박숙자 ▶유순옥 ▶박연지 ▶박영호 ▶박을선 ▶박재자 ▶송태고 ▶신델라 ▶신영희 ▶안숙자 ▶안정웅 ▶윤경자 ▶윤복순 ▶원윤식 ▶윤순옥 ▶윤은기 ▶이기용 ▶이미숙 ▶이미정 ▶이영희 ▶이은미 ▶이종실 ▶이중희 ▶이춘선 ▶이한인 ▶이호연 ▶장동원 ▶정영옥 ▶조미숙 ▶정현경 ▶최경숙 ▶최복녀 ▶한경숙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인사

(명예퇴직) ▶이규환 지방부이사관 (6월24일자) (겸임발령) 윤재철 수도사업소장 도시과장 겸임 (6월24일자) ▶이광호 지방행정주사보 공보관담당관실 ▶박상진 지방행정주사보 의회사무국 ▶이현우 지방행정주사보 기업지원과 ▶이종구 지방행정주사보 문화체육과 ▶고창국 지방행정주사보 자치행정과 ▶이운경 지방행정주사보 보건소 ▶신태만 지방행정주사보 내촌면 ▶오정근 지방행정주사보(승진) 기획감사담당관실 ▶김은정 지방사회복지주사보(승진) 사회복지과 ▶백효연 지방복지주사보(승진) 산란복지과 ▶전운배 지방시설주사보(승진) 건설과 ▶최미실 지방시설주사보(건설과) ▶김여정 지방사회복지주사보(승진) 군내면 ▶김현옥 지방사회복지주사보(승진) 내촌면 ▶이경순 지방농업주사보(승진) 농축산과 ▶이현주 지방행정서기 교통행정과 ▶정호중 지방공업서기 수도사업소 ▶장시영 지방시설서기 환경위생과 ▶김대현 지방시설서기 건축과 ▶윤주희 지방시설서기 교통행정과 ▶양진원 지방행정서기(승진) 기업지원과 ▶장지호 지방환경서기(승진) 환경위생과 ▶이종일 지방시설서기(승진) 건축과 ▶이지영 지방행정서기(승진) 소출음 ▶정해진 지방사회복지서기(승진) 소출음 ▶강문주 지방행정서기(승진) 회계과 ▶김두홍 지방행정서기(승진) 가산면 ▶정혜영 지방행정서기(승진) 영중면 ▶김영남 지방시설서기(승진) 영중면 ▶김술 지방행정서기(승진) 일동면 ▶정찬수 지방공업서기보 포천반월아트홀 사업소 ▶이선주 지방농촌지도사 시보 농업기술센터 ▶이우진 지방농촌지도사 시보 농업기술센터 ▶인수진 지방의료기술서기보시보 보건소

(이상 6월25일자)



포토 뉴스



경북중 방과후 학교 공개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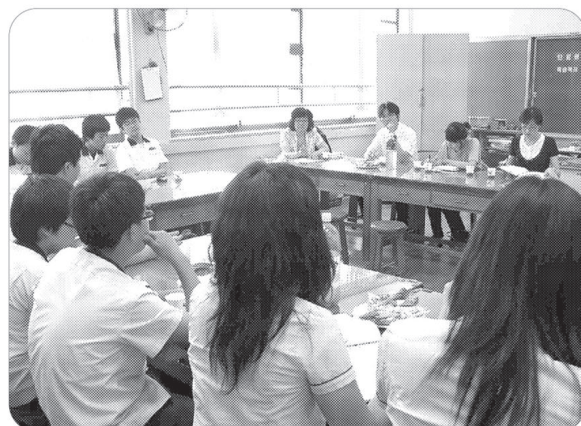
경북중학교(교장 심동섭)는 6월16일 7,8교시에 걸쳐 방과후활동에 대한 학부모 초청 수업공개 행사를 가졌다. 이날 수업공개행사는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해 학생들의 활동작품을 관람하고, 자녀들의 방과후수업활동을 참관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자녀의 방과후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교사들이 학생들의 방과후활동 및 기타 활동을 위해 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각종 교육활동자료에 대해서도 칭찬과 격려가 이어지기도 했다.



경북중 주먹밥 의미 되새겨

경북중학교(교장 심동섭)는 6월27일 지역 면사무소의 후원으로 등교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먹밥 시식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들이 바깥적인 한국전쟁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주먹밥 한 덩어리로 생활해야 했던 지난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하는 행사를 가져보는 어른들의 취지로 열리게 되었다. 주먹밥을 받아든 학생들은 처음엔 뭐가 싶어 의아해 하더니 어른들의 설명과 전쟁관련 사진자료들을 보면서 주먹밥 한 덩어리에 담긴 의미를 가슴에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사제간의 대화의 시간 가져

경북중학교(교장 심동섭) 6월20일 학생과 교사이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1학기 사제간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1학기 동안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와 2학기 새로운 교육활동 계획 수립을 위한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학생회 간부와 간담회에 참여 희망 학생, 교사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운영과 이과지구도교육,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교사들이 2학기 교육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승우중 3학년 정정호 군 경기도대회 금상

개발프로그램머가 꿈인 중학생이 경기도 정보올림피아드 대회에 참가해 금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회제의 주인공은 승우중학교 3학년 1반 정정호(15·시진)군으로 자신이 직접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5개 문제중 4개를 풀어 금상을 수상했다. 전라시(올레이션)는 대회가 되고 싶다는 정군은 "오는 7월18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되는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故정공채 시인·토지문화관·이병주 문학관

포천문인협회 경남 하동 문학기행 34명 참석

포천문인협회(회장 이종희)는 6월21일 경남 하동 일대에서 문학기행을 갖고 그동안 문예대학에서 보여준 문학수업의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기행은故정공채 시인의 묘소 참배, 이병주 문학관 탐방, 토지문화관 탐방, 화계장터를 돌아오는 여정으로 마련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초, 학부모 공개 수업

포천초등학교(교장 임중수)는 6월21일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부모 공개 수업을 실시했다. 3교시에 실시한 공개 수업에서는 각 학급별로 주제를 정해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고 말씀하셨으며 5학년 김예진 어린이는 "부모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니 떨려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기뻐했다"고 말했다.

이재연 학생명예기자(skfkgk3@hanmail.net)



문학기행 후기

포천文協 발전의 원동력

무자년 6월 21일 제5회 포천문예대학의 마지막 행사인 문학 기행을 가는 날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문예대학 수업은 포천 문인에게는 재충전의 시간이었고 학생시절 문화에 꿈을 가지고 계셨던 아홉 아저씨들의 열정의 특강무대였다.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의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구절이라도 더 담고 싶은 문인들의 열정이 초롱초롱 빛나서 눈이 부실 정도였다.

아침 7시30분, 사무국장님의 욕심으로 정말 뜻 깊고 꼭 가보고 싶었던 문학기행 경남 하동을 향해 출발하였다. 첫 번째 일정으로 하동군 진교면 삼거리 김우영당에 안치하신 시인 정공채 님의 묘소를 참배했다. 미처 잔디가 뿌리려 내리지 않은 것이 아직도 그분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다. 포천 문인 34인은 선생님 전에 모여 추모시를 낭독하고 독립운동 선생님의 사심을 가슴속에 가득 품고 나왔다. 하늘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부슬부슬 비를 뿌리고 있었다. 선생님은 한숨 흠뻑 흘려가셨지만 그분의 시심은 우리나라 시단에 널리 울려 퍼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리라.

바쁜 일정관계로 서둘러 하동군 북천면 진리리에 위치한 이병주 문학관을 향해 차를 달렸다. 소설 지리산으로 유명하지만 우리나라 문학사 중 80여권의 방대한 작품을 남기셨으며 작가로서의 자유를 위해 싸우시다가 감옥에까지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글 쓰는 사람들이 진정 본받아야 할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경남 하동을 대표하는 고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문학관을 향해 출발했다. 약 30분 정도 섬진강물을 따라 달렸는데 강물을 따라 녹차밭이 소담스럽게 펼쳐졌다. 촉촉이 내리는 빗속에서 섬진강과 녹차 밭은 더욱더 청명하게 빛났다. 사랑하는 연인들의 드라이브 코스로 최상급이니 언젠가 다시 한번 외박이겠다는 다짐을 한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하동군 약양면 평사리 문학관, 버스에서 내려 땅을 밟으니 하동 땅의 기가 나를 얼싸 안는다. 명당중의 명당이었다. 뒤편으로

는 봉우리가 선명한 산들이 겹겹이 감싸고 있고 눈앞에는 모 내기를 갖 끝난 과목들 들림이 한없이 펼쳐져 있으며 그 가운데 부부송이라 불리는 소나무 2그루가 정겹게 서있다. 그 옆을 가로질러 섬진강을 휘감아 도는 물줄기가 모이는 형색은 가히 큰 인물을 배출할 명당임을 실명해 주고 있다. 소설 토지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해놓은 최참관택은 그 생활이 내가 소설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한다. 소설 토지의 촬영 세트장과 평사리 문학관을 제대로 둘러보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부족하여 아쉬움만 내뿜며 대문대문 매달려 있다. "너~ 무 좋고~"하면서 경상도의 액션 영화를 가득 넣은 사무리로 번인 감동의 설명을 해주던 차 문화원 국장님의 열정과 방긋 웃는 미소가 오래도록 사이에 머물러 있다.

기념촬영으로 토지문화관에 다녀움을 담아놓고 버스에 몸을 실었다. 마지막으로 조영남씨의 노래로 유명한 화계장터에 들러 동동주에 재첩무침으로 목을 축이니 모두가 흥에 겨워 문학에 대한 뜻 다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와 노래와 춤이 어우러지고 나이와 성별을 떠난 직장과 계급을 떠난 한마음의 추세를 즐기기도 했다. 오후 10시30분 마지막 휴게소인 안성에서 늦은 저녁으로 먹었던 우동은 맛은 여행으로 지친 속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이번 문학 기행을 통해 많은 회원분들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포천문인협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리라 기대해본다. 포천문예대학 5기 수업을 통해 문인들은 무엇인가 담야할 수 있는 문학모임이 있다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열정을 가지고 달려 올 수 있음을 느꼈다. 동두천에서, 양주에서, 운전에서 달려오신 문인들의 열정과 포천 문인들의 노력이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는 꿈을 가져본다.



유경자 주부명예기자(한)

월빙

부사의(不思意)

모미즘 (momism) 53

모미즘(momism)이란 말을 처음 들어볼 것이다. 모미즘이란 필자가 만들어낸 말이다. 모미즘이란 'momism'의 합성어(合成語)이다. 몸과 맘을 하나로 표현한 말이다. 몸과 맘은 둘이 하나라는 말이다. 바늘 가는 데 실 가듯이 몸과 맘은 항상 같이 간다는 말이다. 모미즘은 말이 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태극(太極)이 무극(無極)이요, 무극이 태극이란 말과 통하는 말이기도 하다. 무극 속에 태극의 진리(眞理)가 내포되어 있듯이 모미즘 속에 우리 인간의 실체(實體)가 들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말이 상위개념(上位概念)이다. 말이 우선이다. 그래서 심기혈정신(心氣血精神)이라 한 것이다. 마음이 가는 곳에 기가 가고 기가 가는 곳에 피가 흐르며 피가 흐르는 곳에 힘이 쏠리고 힘이 쏠려야 신이 열린다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맘은 몸

이 없으면 꿈쩍 못한다. 한 치도 움직이지 못한다. 몸을 통해서만 맘이 작용(作用)하기 때문이다. 맘은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몸을 빌리는 것이다. 몸을 빌려 일을 하는 것이다.

맘은 생각이라는 프로세스(prozess)를 통해 일을 한다. 그리고 맘을 지배하는 생각은 뇌(腦)에서 화학작용(化學作用)을 일으킨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면 뇌는 즉각 반응한다. 희노애락(喜怒哀樂)에 따라 얼굴빛이 달라짐은 그 때문이다. 분노와 적대감은 심장박동(心臟搏動)을 빠르게 하고 혈압(血壓)을 증가시켜 얼굴을 상기시킨다. 불안감(不安感)에 사로잡히면 식은땀이 흐르고 속이 답답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생각이 질린다. 몸과 맘이 같이 가기 때문이다. 몸과 맘이 동시(同時)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는 의학적으로 실체(實體)가 없다. 그러나 이 실체 없는 실체마저도 호르몬이란 실재하는 물질(物質)을 통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 몸 안의 세포(細胞)들은 순간순간 마음을 물질로 변화(變化)시킨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화학적(化學的)인 메시지(message)로 전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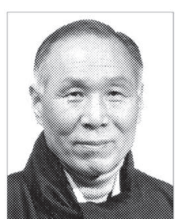
킨다. 우리 몸이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기록(記錄)한다는 말이다. 왜곡(歪曲)된 생각은 뇌에서 왜곡된 화학작용(化學作用)을 일으킨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뒤뜰린 분자(分子)'가 없다면 '뒤뜰린 생각'도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뒤뜰린 생각을 해서 안 된다라는 말이다. 뒤뜰린 생각을 버리고 중심(正心) 정각(正覺)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흔히 건전한 정신(精神)은 건전한 육체(肉體)에서 온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육체가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것이 아니다. 육체는 정신의 소산(所産)이요 정신작용의 결과물(結果物)이기 때문이다. 육체가 병든 것은 정신이 병들기 때문이다. 정신이 건전(健全)하다면 육체는 병들 수 없는 것이다. 정신이 불건전(不健全)하기 때문에 육체가 병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신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정신수련(精神修練)을 하는 것이다. 정신수련을 하면 누구나 건전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선도수련(仙道修練)이요, 기수련(氣修練)이다. 선도수련은 심신의 균

형(均衡)과 조화점(調和點)을 찾아가는 수련이다. 기(氣)를 매개로 심신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가는 수련이다. 심신(心身)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순간 '모미즘'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체의 균형과 조화가 깨지는 순간 몸은 싸인(sign)을 보낸다. 균형과 조화가 깨졌다고 그 즉각 알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한다. 그 싸인을 무시하는 순간 균형이 깨지고 건강은 무너진다. 병(病)이 오고 고통(苦痛)이 뒤따른다. 사는 날까지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면(內面)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모미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모미즘은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지식(知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수련을 통해 그 경지 경지를 넘어야 가능한 것이다. 몸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맘공부를 해야 한다. 아니 몸과 맘공부를 동시에 해야 한다. 그래서 모미즘을 말하는 것이다.



이규임 안국영학사학원 명예학장